

왜 7월 24일에 본 실기시험 후기를 이제서야 쓰냐고 묻는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떨어져서 안 썼고, 귀찮아서 안 썼다.
실기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51점 받았다.

시험결과 보기

시험명	구분	수험번호	응시증목	시험결과	일자리찾기 취업지원
2022년 정기 기사 2회	실기		정보처리기사	불합격	찾기
2022년 정기 기사 2회	필기		정보처리기사	합격	찾기
"박현준님 정보처리기사[필기] 합격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년 정기 기사 1회	필기		정보처리기사	결시	찾기

※ "시험결과 보기" 는 당해년도에 발표중인 시험만 조회되며, **합격자 발표기간에는 수험번호를 클릭하면 특정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험결과보기"는 해당시험의 합격자발표기간(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조회됩니다.
※ 시험정보(모범답안, 배점, 세부문항별 득점 등)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의거 비공개 사항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정기 기사 2회 (실기) - 정보처리기사					
수험번호	이름	종목(자격)	구분	점수	합격여부
	박현준	정보처리기사	필답형	51	불합격
			총점	51	

※ 국가기술자격증 신청·발급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공단 방문 신청·발급 폐지, Q-Net 공지사항 및 수험표 참조).

<https://www.q-net.or.kr/myp003.do>

불합격한 이유는 당연하게도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이론에서 박살이 났다.
SQL 공부 조금만 했으면 합격이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

출제기준
메뉴상단 고객지원-자료실-출제기준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출제기준(2020.1.1~2022.12.31).hwp 출제기준 다운로드 ↓ 정보처리기사 출제기준(2023.1.1~2025.12.31).hwp 출제기준 다운로드 ↓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5&jmCd=1320>

빈자리추가접수기간에 다가오는 10월 16일 정기기사 3회 실기시험을 신청했다.
찾아보니 출제기준이 내년부터 바뀌는 것 같았다.
팬히 문제 유형 바뀌어서 공부하기 더 피곤해지기 전에 빨리 붙어야겠다 싶었다.

물론 공부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시험 직후 작성했던 메모로 지난 시험의 기억을 되짚어보면서, 어떻게 공부할지 감도 잡을 겸 늦게나마 후기 글을 작성해 보기로 했다.

1.

필기와 달리 실기 시험에서는 시험지를 가져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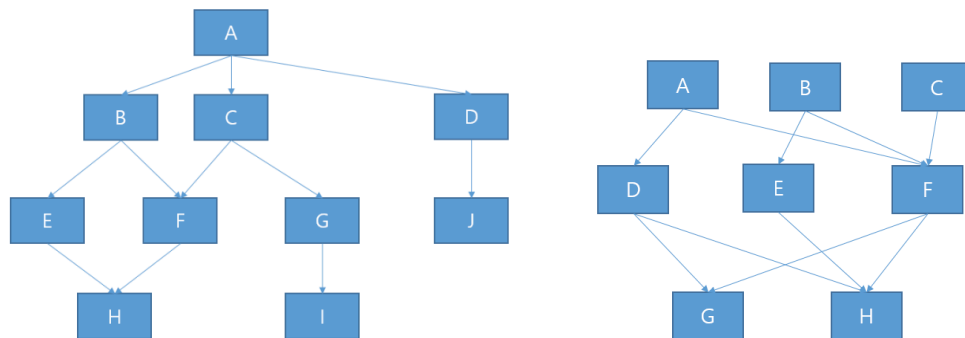
그래서 시험 직후 수험생들이 기억을 되짚어가며 문제를 복원하고, 이를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다.

필기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는 꼭 공부하고 가야 한다.

나는 거의 기출만 보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거의 비슷하게 다시 나온 문제가 있어서 달달하게 5점 먹었다.

20. 다음은 모듈의 관계를 나타낸 다이어그램이다. fan-in 개수가 2 이상인 모듈 명칭을 쓰시오.

20. 다음 모듈 F에 대한 Fan-in과 Fan-out을 작성하시오.



2020년 1회, 2022년 2회 정보처리기사 실기 복원 문제 비교

출처: <https://chobopark.tistory.com>

2.

용어 이름이 나오는 문제가 많아서 용어 전부 영어 풀네임으로 공부해야 한다.

뜻은 정확히 외우지 않고 이름만 외우더라도 이름에서 대략적으로나마 뜻을 유추할 수 있다.

문제에서 힌트를 많이 주기도 한다.

3.

프로그래밍, SQL 관련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온다.

이쪽 파트 다 맞춘 다음 암기 파트 쉬운 것만 맞추고 적당히 찍으면 딱 60은 넘겠다 싶었다.

프로그래밍, SQL에 자신 있는 사람이나 전공자는 정말 조금만 공부해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그 생각에 필기보다 짧은 시간 버락치기했다가 불합격을 했지만...

반대로 자신이 없다면, 암기 열심히 하고 프로그래밍, SQL 쉬운 문제만 맞힌다는 느낌으로 접근해야 할 듯.

부분 점수도 있다고 하니 최대한 쓰자.

4.

필기스러운 실기 문제가 많이 나온다.

주관식 문제만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완전히 외우지 않더라도 보기를 주는 문제가 많아서 충분히 찍을 수 있다.

5.

첫 장부터 이론 관련 문제가 쏟아지는데, 아는 게 없어서 계속 페이지 넘기기만 했다.

공부 안 한 업보가 돌아왔다.

이참에 공부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네트워크 보안 쪽은 거의 무지렁이 수준이었다.

6.

프로그래밍 문제 중 파이썬 포매팅 문제가 나왔다.

모르고 눈치껏 풀었어도 맞힐 만한 쉬운 문제였는데 틀렸다.

아마 프로그래밍 관련 문제 중에서는 이 문제만 틀린 것 같다.

프로그래밍 파트 문제를 다 맞혔어야 그나마 승산이 있었는데...

13. 다음은 파이썬 코드이다. 알맞는 출력값을 작성하시오.

```
1 a = "REMEMBER NOVEMBER"
2 b = a[:3] + a[12:16];
3
4 c = "R AND %s" % "STR";
print(b+c);
```

더보기

출처: <https://chobopark.tistory.com>

평소에 f-string이나 format 함수를 쓰다 보니 몰랐다.

보통 f-string이나 format() 쓰지 이 문제에서 사용된 문법을 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 괜히 심술이 났다.

오답자의 비겁한 변명이긴 하다.

프로그래밍 문제는 생각한 것보다 어려웠다.

2회 필기 때 나온 수준 정도로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실기 때 프로그래밍 관련 기출문제는 거의 공부 안 하고 가서 몰랐는데, 찾아보니 시험마다 프로그래밍을 잘 모른다 면 어려워할 법한 문제 하나씩은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너무 어렵거나 도저히 못 푼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니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하다.

내 기준에서 정리하자면

1. SQL 공부해야 한다.
2. 이론은 대강 여러 번 훑어보고 용어 위주로 암기해야 한다. 약어도 풀어서 외워야 한다.
3. 2020년부터 출제된 실기 문제는 전부 풀어보고, 해설을 달아가며 공부해야 한다.

이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부할 때 보면 좋은 법한 자료 링크들을 일단 아래 정리해두고, 조금씩 찾아서 공부해야겠다.

<실기 기출문제 복원>

<https://chobopark.tistory.com/291>

<https://q.fran.kr/%EC%8B%9C%ED%97%98/%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20%EC%8B%A4%EA%B8%B0>

<시험 후기>

https://velog.io/@hye_rin/2022%EB%85%84-2%ED%9A%8C-%EC%A0%95%EB%B3%B4%EC%B2%98%EB%A6%AC%EA%B8%B0%EC%82%AC-%EC%8B%A4%EA%B8%B0-%ED%9B%84%EA%B8%B0

<https://ssocoit.tistory.com/187>

<기출 해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wXldj55mFgDnGuNrQ99nrVL3Es9htWn9>

<네이버 수제비 카페 체크리스트>

<https://cafe.naver.com/soojebi/19981>